

외국인 유학생 감염병 관리방안: 부산시 소재 대학의 코로나19 대응을 중심으로

조경원* · 이상대** · 김수정*** · 김민경****†

*고신대학교 의료경영학부 교수, **부산대학교, 부산광역시 대학협력단, 공학사
동서대학교 보건행정학과 부교수, *동주대학교 보건의료행정과 강의중점교수

Infectious Disease Control for International Students: Focusing on COVID-19 Response by University in Busan

Kyoung Won Cho* · Sang Dae Lee** · Soojeong Kim*** · Min Kyung Kim****†

*Professor, Dept of Health Care Administration in Kosin University

**bachelor of engineering, University Cooperation Division, Pusan National University

***Associate Professor, Dept of Health Administration in Dongseo University

****Assistance Professor, Dept of Health and Medical Administration in Dongju College

ABSTRACT

Background & 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infectious diseases control and crisis response plans for International students by investigating the management of International students and prevention of infectious diseases targeting International students infectious disease control managers at universities in Busan in a situation where the risk of infectious diseases increases due to the spread of COVID-19.

Methods: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14 International students infectious disease control managers at universities in Busan. Statistical analysis was done by using SPSS 22.0.

Results: There were differences in the importance and performance of COVID-19 infectious disease control and support work by university.

Conclusions: It is necessary to integrate management of support and roles of infectious diseases control for foreign students. Furthermore, strengthening the competence of experts and communication tools with international students are needed.

Key words: COVID-19, Infectious Disease Control, International Students, University

* 이 연구는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과 동주대학교의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음.

접수일 : 2020년 12월 30일, 수정일 : 2021년 03월 07일, 채택일 : 2021년 03월 08일

교신저자 : 김민경(49318,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리로 55번길 16)

Tel: 051-200-3313, Fax: 051-200-3472, E-mail: rallahappy@hanmail.net

I. 서론

코로나19의 폭발적인 확산으로 2020년 3월 11일 전 세계적 대유행인 팬데믹(pandemic)이 선언되었다(WHO, 2020). 코로나19는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신종감염병으로 확산 속도가 빨라 짧은 시간에 다수에게 전파되기에 국제적인 협력을 통한 대응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손애리 외, 2020). 중앙정부에서도 감염병의 국내 유입 경로 파악과 차단을 위해 특별입국절차를 강화하고, 감염병 대응력 강화를 위한 정보제공 및 중앙정부의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손창우, 2020).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한 백신과 치료제가 보급되기 전까지는 국민들은 여전히 불안한 마음으로 생활하며 지켜보고 있는 현실이다.

신종감염병의 경우 해외에서 유입되는 경우가 많기에 외국인 노동자나 외국인 유학생 등에 의한 감염병의 국내 유입 위험이 크게 증가하였다(질병관리청, 2020; 안진희 외, 2016). 국내 입국한 외국인들의 건강상태는 지역사회 및 학교내의 구성원들의 건강관리와도 밀접하게 연관되며, 2차 감염으로 이어져 국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기에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안진희 외, 2016). 중앙정부도 특별입국절차를 강화하여 외국인에 의한 감염병 유입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사람 중 무증상 확진자의 비율이 40%에 달한다는 뉴스보도(KBS뉴스, 2020.11.02.)처럼 입국한 외국인의 2주간의 격리기간 만으로는 완전한 예방이 될 수 없다. 우리나라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격리기간 이후에도 이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과 확인이 필요하다.

2019년 기준 전국 외국인 유학생은 160,610명으로 2018년 142,757명 대비 약 13% 증가하였고, 부산시 외국인 유학생은 2015년 6,163명에서 2019년 12,475명으로 2배 이상 증가하였다(통계청, 2020). 부산시 소재 대학의 경우 2020년 현재, 학위과정

4,708명, 교육과정 공동운영 463명, 연수과정 2,207명으로 총 7,378명의 외국인 유학생이 집계되었다(대학알리미, 2020). 외국인 유학생의 양적 증가는 감염병의 집단 발병과 확산의 주요 위험요인이 되기에(이시철 외, 2020; 김승대, 2019) 이들의 건강관련 지원을 위한 전담 기구와 전문 인력 배치 등을 통한 지원은 필수적이다(이내영과 한지영, 2011). 외국인 유학생의 활동반경과 접촉자의 범위는 직장 내에서 활동하는 노동자보다 넓을 수밖에 없다. 개방적인 대학교 환경과 대학생의 자유로운 교내의 활동에 의해 유입된 감염병이 무작위로 확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에 감염병 예방을 위한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관심과 관찰은 필수적이다. 향후에도 언제, 어디서든 예측하지 못한 신종감염병이 발생할 수 있기에(김영복, 2020; 박동균, 2020), 대학은 이를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대응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코로나19의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 국가적 차원의 위기대응체계 재정립 뿐 아니라 지역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연구 및 체계 수립이 시급히 필요하다(손창우, 2020; 정다혜, 2020).

외국인 유학생의 감염병 관리는 해당 유학생에게 건강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측면과 동시에 우리나라 국민의 감염병을 사전예방하고 관리한다는 국민건강 서비스 측면에서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부산지역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관리 및 감염병 예방 실태를 조사하여 외국인 유학생 감염병 관리 및 위기대응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부산시 유학생 감염병 관리 및 위기대응 방안 구축을 위한 질적 연구로 부산시 15개 4년제 대학 감염병 담당자를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이들은 부산시 소재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감염병 관리 담당자이며, 대학 내 외국인 유학생 관리부서에서 감염병 관리를 담당하는 교직원 중 연구에 참여 의사를 밝힌 자였다. 1개 대학은 외국인 유학생 수가 적어 제외하고 14개 대학 담당자를 대상으로 전문가 면담조사를 실시하였다.

2. 자료수집 및 분석

부산시 소재 4년제 대학의 코로나19 관련 담당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관리현황을 파악하고, 현장에서의 경험을 반영한 실제적인 감염병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질적 자료 수집은 2020년 11월 16일부터 2020년 11월 30일까지 이루어졌다. 학교별 전문가 면담조사에 대한 소요시간은 1시간에서 1시간 30분이었으며, 보건학을 전공한 3인의 연구진에 의해 이루어졌다. 교육부의 '대학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2020.4)'를 중심으로 대학별 코로나19 대응 기본방향, 평상시 대응, 감염의심자 발생시 대응, 확진자 발생시 대응, 기숙사 등 시설관리 현황을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주요 질문은 다음과 같다.

- (1) 코로나 19와 관련하여 교육부, 부산광역시(시청), 관할 구(구청), 관할 보건소, 대학교육협의회 등에서 어떠한 지원이 있었으며, 이와 관련한 개선방안 및 의견은 어떠한가?
- (2) 코로나 19 대응 기본 방향에 대한 관리체계 및 유관기관 협조체계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으며, 감염예방을 위해 철저한 안내 및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 (3) 코로나 19 대응 기본 방향에 대한 대응은 어떠한가, 이와 관련한 어려움, 개선방안 및 의견은 어떠한가?
- (4) 감염의심자 발생시 대응은 어떠한가, 이와 관련한 어려움, 개선방안 및 의견은 어떠한가?
- (5) 확진환자 발생시 대응은 어떠한가, 이와 관련한 어려움, 개선방안 및 의견은 어떠한가?

- (6) 기숙사 등 시설관리는 어떠한가, 이와 관련한 어려움, 개선방안 및 의견은 어떠한가?

교육부의 '대학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2020.4)' 지침을 활용하여 개발한 반구조화된 설문지 내용 구성과 형식은 대학 담당자 1인, 간호학 교수 1, 보건학 전문가 1인으로부터 검토를 받아 안전 타당도를 확보하였다. 그 후 대학 감염병 담당자 2인을 대상으로 예비조사 하여 문항의 난이도 조정 및 용어를 수정한 후 최종 문항을 선정하였다.

조사대상자의 기본 정보 및 코로나 19 대응 지원, 코로나19 대응 기본방향, 감염의심자 발생시 대응, 확진환자 발생시 대응, 기숙사 등 시설 관리에 대한 현장에서의 경험과 관련한 질적 연구 결과를 제시하였다.

3. 연구의 타당성 확보

연구의 타당성 확보를 위하여 Guba와 Lincoln (1981)의 사실가치성, 적용성, 일관성, 중립성의 기준을 적용하였다. 참여자 중 무작위로 추출된 2인을 대상으로 한 분석 결과 확인 및 진술을 통해 자료와 분석결과에 대한 사실가치성을 확보하였고, 제 3자인 부산시청 주무관 2인, 대학협력관 2인, 대학 담당자 2인으로부터의 연구 설계와 자료에 대한 검토를 통해 적용성을 확보하였다. 일관성 확보를 위해서는 자료설계부터 자료수집, 분석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을 상세히 기술하였고 제시된 분석단계에 따라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다양한 관점에서 문헌을 고찰하고 정리하였을 뿐 아니라 연구자의 선입견이나 편견 등을 의식하고 개인적 해석, 선입견을 구분하여 분리하고자 하였으며, 대학의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하여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고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대학 감염병 담당자를 선정·조사함으로써 중립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였다.

4.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연구 참여자가 속한 대학의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심사를 거쳐 진행하였다(IRB승인번호: 1041493-A-2020-015). 연구를 진행함에 있어 연구 참여자에게 연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 후 연구 참여에 대한 동의를 먼저 받았다. 수집된 개인정보는 연구목적외로만 사용되고 익명성과 비밀보장, 기록된 내용의 사용 시 참여자의 소속 대학은 알파벳으로 표시되며 연구종료 시 자료가 폐기될 것임을 설명하였다. 또한 연구 과정동안 참여자의 의사에 따라 연구 중간에 언제든지 중단될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이들 중 최종적으로 연구 참여의사를 밝히고 서명동의를 한 14명을 연구대상자로 선정하고 조사 및 분석을 실시하였다.

Ⅲ. 연구결과

1. 조사대상자의 특성

1) 조사대상자 기본 정보

조사대상자 기본 정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1〉 조사대상자 기본 정보

대학	근무부서	역할	직책	해당부서 근무경력	전공	대학내외 감염병 관련 위원회 활동 여부	감염병 관련 교육 경험
A	국제학생지원팀	유학생 관리 지원 총괄	팀장	1-3년	사회계열	N	Y
B	국제교류팀	유학생 유치 관리 등 총괄	팀장	1-3년	공학계열	Y	N
C	국제교류원	관리, 입학지원	직원	5년이상	인문계열	N	Y
D	국제교류센터	국제교류업무 총괄, 유학생 입학 및 관리 총괄	센터장	5년이상	인문계열	Y	N
E	국제교류과	유학생 관리	직원	5년이상	사회계열	Y	Y
F	국제교류팀	유학생 유치 및 관리	직원	5년이상		N	Y
G	국제교류부	입시, 유학생 관리	주무관	5년이상	사회계열	N	N
H	대외협력처	유학생 유치 관리	계장	5년이상	의약계열	N	Y
I	대외교류본부	유학생 유치 및 지원	팀장	1년미만	사회계열	N	N
J	국제교류팀	유학생 유치 및 관리 등 전반적인 업무	과장	3-5년	인문계열	Y	N
K	국제교류팀	유학생 관리	팀원	5년이상	인문계열	N	Y
L	국제협력팀	유학생 관리 및 유학생 입시	담당자	3-5년	인문계열	N	N

대학	근무부서	역할	직책	해당부서 근무경력	전공	대학내외 감염병 관련 위원회 활동 여부	감염병 관련 교육 경험
M	대학원 행정실	학생관리, 업무총괄	과장	3-5년	사회계열	N	Y
N	국제교류 본부	유학생 관리	담당자	5년이상	인문계열	N	Y

첫째, 14개 대학 담당자 모두 감염병 대처와 관련이 없는 근무부서에서 유학생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전공분야도 인문계열 6명(42.9%), 사회계열 5명(35.7%), 공학계열 및 의약계열 각 1명(7.1%) 등 다양하며, 해당부서 근무경력도 5년 이상이 8명(57.1%), 3년-5년 미만이 3명(21.4%), 1년-3년 미만이 2명(14.3%), 1년 미만이 1명(7.1%)이었다.

둘째, 대학 내외 감염병 관련 위원회 활동 여부에 서 4개 대학(28.6%)만 활동하고 있으며 나머지 10개 대학(71.4%)은 활동하고 있지 않았으며, 감염병 관련 교육을 받은 경험은 8개 대학(57.1%)은 경험이 있

고 6개 대학(42.9%)은 경험이 없었다. 관련 위원회 활동도 있고 교육 경험도 모두 있는 담당자는 1개 대학이며, 3개 대학은 관련 위원회 활동도 없었고, 교육 받은 경험도 없는 상태이고 나머지 10개 대학은 위원회 활동이나 교육경험 중의 하나만 있는 경우였다.

2. 코로나19에 대한 경험

코로나19에 대한 현장에서의 경험과 관련한 면담 내용의 전체적인 주제와 하위요소의 범주는 다음과 같다.

〈표 2〉 코로나19에 대한 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 주제, 하위주제

주제	하위주제
코로나19 대응 지원	- 코로나19와 관련한 지원 : 교육부, 부산광역시(시청), 관할 구(구청), 관할 보건소, 대학교육협의회, 기타 - 코로나19 대응 지원에 대한 개선방안 및 의견
코로나19 대응 기본방향	- 관리체계 및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성 - 코로나19 대응 기본방향 대응에 대한 어려움, 개선방안 및 의견
감염의심자 발생시 대응	- 등교 또는 출근 중지 학생·교직원에 대해 지속적인 연락체계 유지를 통해 코로나 19 검사 실시 및 결과 파악 여부 - 학생의 등교중지 기간에 대한 출석인정 및 학습 결손 보충 방법 - 감염의심자 발생시 대응에 대한 어려움, 개선방안 및 의견
확진환자 발생시 대응	- 보건당국과 협의하여 확진환자가 발생한 시설을 일시적으로 이용제한 조치, 보건당국의 역학조사에 적극 협조 - 대학이 일시적 이용제한 및 출입금지 등 조치한 경우 모든 학생 및 교직원은 해당 기간 동안 집에 머물며 외출을 자제하도록 대응 - 확진자 발생시 대응에 대한 어려움, 개선방안 및 의견
기숙사 등 시설 관리	- 기숙사내 감염예방을 위한 철저한 관리와 입소생 및 방문객 관리 강화 여부 - 기숙사 외 교내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해 감염예방을 위한 철저한 관리와 입소생 및 방문객 관리를 강화 여부 - 기숙사 등 시설관리에 대한 어려움, 개선방안 및 의견

1) 코로나19 대응 지원내용과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

코로나19 대응 지원과 관련하여 교육부, 부산광역시청, 관할구청, 관할보건소, 대학교육협의회, 기타 코로나 19 대응 지원내용과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부의 지원으로는 출입국 관리 및 유학생 관리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현황을 파악하고 관리하는데 도움을 주었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기타 방역지침 등의 자료를 제공해 주거나 현장 점검 및 대응지원금의 지원 등이 있었다. 교육부는 유학생의 입국 이후 활동을 전체적으로 관리를 지원해 주기 위한 플랫폼이나 시스템을 구축하여 유학생의 현황 파악과 관리를 지원해주는 역할에 중점을 두고 활동하고 있었다.

둘째, 부산광역시청의 지원으로는 유학생의 입국 과정에서 학생의 안전한 수송을 위한 지원부터, 자가 격리 기간 동안 방역 및 생활물품을 제공하거나 지원금을 지원하는 등의 전반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입국한 유학생의 실제적인 생활적응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들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특히 부산광역시청의 역할분담 중 하나로 입국 유학생의 수송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부산광역시청에서는 대학별로 입국부터 격리시설입소까지의 수송과정에서 전체적이거나 부분적인 지원을 하고 있으며 유료와 무료 지원 등의 지원내용과 방법에는 대학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었다.

“해외입국자들에게 제공되는 방역 물품, 자가격리 물품을 대학에서 일괄 수령하여 학생들에게 지급하는 것보다, 부산역에서 배부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중략) 기존 업무에 ‘코로나19 대응 지원’ 업무가 더해져 직원들이 많이 힘들어 했는데, 좀 더 효율적이고 간소화된 절차로 지원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대학 감염병 담당자 A)

“입국자 수송지원의 확대(부산역 도착학생 픽업차량 지원)가 필요하며, 저렴한 비용의 시설로 입국자 격리시설을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략) 코로나19 의심학생 발생시 응급차량 수송지원이 필요하며, 비용이 다소 비싼 코로나19 검사비용의 감소 운영이 필요합니다. (대학 감염병 담당자 J)”

셋째, 관할구청의 지원으로는 격리기간 중에 마스크, 도시락, 식료품, 쓰레기 수거 등의 방역이나 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제공해주는 식의 실생활에 밀착한 생활지원이 중심이었다. 부산광역시청의 지원과 차이점을 찾는다면 입국한 유학생의 수송에 대한 지원은 부산광역시청에서 담당한다면, 관할구청은 수송 이후의 구체적인 생활을 지원하는 역할이 중심이었다.

넷째, 관할보건소의 지원으로는 입국한 유학생의 코로나 검진부터 자가격리 기간 중의 방역과 필요한 생활 및 의료물품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다섯째, 대학교육협의회는 방역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한 예비비 등의 예산 지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여섯째, 코로나19 대응 지원에 대해 개선해야 할 내용으로 예산지원,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유관기관 소통강화를 공통적으로 제안하였다.

“외국인 유학생 시설격리비용 지원 또는 격리시설 운영이 필요합니다. 대교협 예비비 지원사업의 지출 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학 감염병 담당자 G)

“시 시설격리비용이 유학생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시, 구, 대학에서 일정부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중략) 부산역 해외입국자 검역소에서 실시하는 문진표 작성은 KTX로 이동하는 동안 작성하여 검체 대기시간을 줄일 필요

가 있습니다.” (대학 감염병 담당자 I)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하여 여러 기관에서 유사한 자료 및 불필요한 현황요청 자료를 빈번히 요구하는 등 현장의 행정 부담이 가중되었습니다(시청, 교육부, 보건소, 소방서 등). 요청 현황 등의 공식 문서를 규격화하여 한 개의 기관이 지속적으로 접수하여 유관기관에 공유하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대학 감염병 담당자 I)

“학교 단위별로 요청하는 지원 사항(주로 예산, 격리시설, 학생수송)이 현장에서 해결될 수 있도록 관련기관(교육부, 지자체, 대학협의회)간 소통강화가 필요합니다.” (대학 감염병 담당자 H)

2) 코로나19 대응 기본방향에 대한 의견

코로나19 대응 기본방향에 대한 어려움과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관리시스템 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하는데, 관리시스템의 정확한 역할분담체계와 상황별로 구체화된 상세한 가이드라인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모든 절차가 비대면화 되고 있어 외국인 유학생의 학업에 어려움이 발생합니다. 무조건적인 비대면 권고 보다는 정확한 가이드라인에 맞춰 대면수업이 가능하도록 완화가 필요합니다.” (대학 감염병 담당자 F)

“학교, 지자체, 국가(정부)간의 역할분담체계가 미흡합니다. 구체적인 업무 분담 조정이 필요합니다.” (대학 감염병 담당자 I)

“업무지침은 교육부의 기본대응방향에 근거하여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상황 발생시(발열 등) 관련 전문가가 아니다보니 즉각 대응이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보통 유관기관 통보 후 귀가 조치하는 수준에 그칠 수밖에 없습니다.” (대학 감염병 담당자 J)

둘째,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인력, 시설, 예산의 부족에 대한 의견이 있었다. 특히 대학담당자 입장에서 예산의 사용과 비용지출에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건발생시 예산의 사용과 지출의 주체를 명확하게 해줄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며,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부족한 인력 및 예산 지원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1년이 가까운 시간이 지나면서 코로나19 대응도 많이 인정되었고 체계화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감염예방을 위한 기본수칙들도 대부분 알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도 학교의 지침에 잘 따라주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인력과 시설 부족 문제는 제일 절실한데도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차선책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대응의 범위를 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원칙은 잘 알고 있지만, 어디까지 적용해야 하는가는 개인별로 판단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2인 1실로 기숙사에서 생활하던 학생이 감염의심자로 검사를 받고 격리해야 하는 경우, 지금까지 공동생활을 하던 룸메이트나 일상에서 방문했던 곳들에 대해 어느 선까지 대응을 해야 할 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대학 감염병 담당자 C)

“예산지원은 감사하나 예산운용과 관련, 체계가 잡혀있지 않습니다. 일선 담당자들은 불분명한 가이드라인 때문에 혼란스럽습니다. 모든 관계자 및 관계부처가 바쁜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콜센터 운영이라도 확실하게 이루어진다면 상황발생시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대학 감염병 담당자 D)

“대응 매뉴얼을 최대한 수행하고 있으나, 코로나의 장기화와 예산부족으로 향후 행정 대응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충분한 대응 준비를 위한 국가와 지자체 단위의 지원 방안(별도 예산 등)이 필요합니다.” (대학 감염병 담당자 G)

셋째, 유학생들의 출신이 다양한 경우, 다국적 언어 때문에 정확한 소통이 어려운 상황인데, 다국어 지원할 수 있고, 다양한 플랫폼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앱이나 프로그램의 개발로 유학생과의 신속하고 원활한 소통 지원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문자로 수신되는 대응정보가 외국인 유학생들에 정확한 정보전달이 어려움으로 다국어 통합 앱을 개발하여 다양한 정보를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에게 제공하여 보다 신속한 대응 인프라 확대가 필요할 듯합니다.” (대학 감염병 담당자 B)

“유학생의 경우 자가진단 앱 설치와 관련하여 휴대폰 개통여부, 기종 등에 따라 예러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에 대한 시정조치가 필요합니다. 전담 공무원이 배정된 후 앱 오류, 전화연락에 어려움이 많기에 SNS(카톡, 위챗, QQ 등)를 통한 격리자와의 연락망을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학 감염병 담당자 H)

3) 감염의심자 발생시 대응에 대한 의견

감염의심자 발생시 대응에 대한 어려움, 개선방안 및 의견으로는 감염의심자의 수송을 담당할 전문 인력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감염의심자의 수송과정에서 감염에 노출될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전문적인 지식과 장비를 갖춘 전문 인력, 전담차량 등의 구비와 감염의심자의 수송방법과 절차에 대한 정확한 가이드라인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여러 업무를 겸하고 있는 대학 내 유학생 관리담당자에 의한 수송은 2차 감염의 우려가 높고, 전문지식이 부족할 경우 현장에서의 적절하고 신속한 대응과 조치가 어렵다. 확진환자로 확진된 이후의 조치는 상대적으로 쉽게 통제하거나 관리할 수가 있지만, 문제는 확진환자로 확진되기 전까지의 애매한 상황에서 대응범위를 결정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위한 상황 판단과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감염의심자의 발생과 조치는 감염의심자의 구체

적인 상황과 조건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통제하고 관리해야 할 범위가 어디까지이고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등을 판단하고 결정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정확한 가이드라인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4) 확진환자 발생시 대응에 대한 의견

확진환자 발생시 대응에 대한 어려움, 개선방안 및 의견으로는 전문 인력 및 가이드라인 제공과 확진환자 관리와 관련된 시설 및 경비의 부담문제를 언급하였다. 그 외에도 대응사례의 공유 필요성과 확진환자 발생에 따른 대학의 부정적 인식 문제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5) 기숙사 등 시설관리에 대한 의견

기숙사 등 시설관리에 대한 어려움, 개선방안 및 의견으로는 교내 격리시설의 부족과 예산 지원이 가장 많았다. 교내 격리시설과 예산지원의 필요성 외에도 격리시설 운영지침의 필요성과 기존 입사학생과의 관리문제를 언급하였다. 대부분 기존의 기숙사를 격리시설로 이용하고 있었는데, 다중이용시설인 기숙사의 경우 일반 입사학생들도 함께 생활하고 있으므로 감염에 취약한 조건이고 확진환자 발생 시 통제나 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기존 입사 학생에 대한 분리 관리와 교내 격리시설에 대한 운영지침이 필요하지만 예산과 시설의 부족으로 많은 대학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임을 알 수 있었다.

IV. 논의

부산시 유학생 감염병 관리 및 위기대응 방안을 구축하기 위해 부산시 14개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감염병 관리 담당자를 대상으로 조사대상자 기본 정보와 코로나19에 대한 경험과 관련한 면담 내용을 분석하였으며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대응과 지원 관련 정보공유를 위한 플랫폼의 구축이 미흡하다는 점이다.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역할구분과 분담체계가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지 않아서 일선 대학의 유학생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지원이 일부 중복되거나 기초 자치 단체마다 대응과 지원이 달라지는 일관되지 못한 현상이 나타났다. 광역자치단체와 기초 자치 단체 간의 명확한 대응 업무와 역할의 분담과 구분이 먼저 협의되어야 유학생의 코로나19 대응의 효율적인 행정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다. 따라서 부산광역시청과 관할구청, 보건소 등의 행정기관 및 대학 간의 정보 공유와 자료전달 및 관리를 위해서는 중심된 기관을 설정하고 통합하여 관리하는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통합관리체계는 긴급한 돌발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과 경험과 정보의 공유공간으로 기능하여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의 확산을 방지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과 관리를 위해서도 필요한 상황이다. 주효진과 장봉진(2020)의 연구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감염병 관리체계와 관련하여 광역자치단체의 지역사회 감염병 관리 대응 체계 구축 및 전담인력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에서부터 광역자치단체, 기초 자치 단체, 보건소, 의료기관의 연계와 소통을 위한 위기대응 거버넌스가 미흡한 현실이다. 소통과 정보공유를 위한 플랫폼의 구축은 감염병 예방을 위한 신속한 대응과 정보전달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행정적인 손실을 방지하고 본연의 업무와 역할에 더 집중할 수 있는 행정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용에도 필요하다.

둘째, 대학 내 유학생을 위한 코로나19 대응지원 담당자의 전문성 제고 및 전담인력이 필요하다. 현재 대학 내 유학생의 코로나19 대응은 유학생과 감염병 예방이라는 2가지의 관리가 혼합되어 있다. 코로나19와 관련된 유학생의 관리 업무가 코로나19의 방역 중심이라면 대학 내 보건업무와 관련된 담당부서가 중심이 되어야하고, 유학생의 관리가 중심이라면 유

학생관리 담당부서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 현재 모든 대학에서 유학생 관리부서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이는 감염병예방과 관련된 전문성이 상대적으로 부족할 수 있다는 문제점을 야기한다. 또한, 대학별로 유학생의 숫자가 다른데 유학생의 숫자가 100명인 대학과 1,000명인 대학의 유학생의 코로나19 예방관리 활동은 다를 수밖에 없다. 유학생이 1,000명이 넘는 대학이 기존의 유학생 관리 부서에서 코로나19 대응지원까지 담당한다는 것은 그 만큼의 업무 부실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 따라서 현재와 같은 역할 분담은 유학생의 관리에는 효율적이겠지만 감염병 예방이라는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감염병 예방은 초동대응이 중요한데 전문성이 없는 담당자로는 역할의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감염병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있으며 적절한 상황 판단과 이에 대응하는 역할을 담당할 전문 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학교는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한 최전선으로 적극적인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업무 수행을 통해 이들을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위기대응역량 강화가 필요하다(정다혜, 2020; Fiore et al., 2012). 대학에서는 학생을 관리하는 담당자의 재난대응역량이 중요하므로, 이들에 대한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전문성 향상 교육을 실시하거나, 별도의 전담인력을 배치하여 감염병 예방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코로나19 같은 감염병 예방은 유학생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학 내 구성원 전체의 문제이므로 감염병 예방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인 감염병 예방 교육, 전담인력 배치가 있어야 한다.

셋째, 코로나19 대응지원과 관련한 구체적인 행동지침 및 매뉴얼의 개발과 보급이 필요하다. 대학의 유학생 담당자는 유학생과 직접 접촉하는 1차 접촉자이다. 이들의 역할과 활동에 대한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감염병 예방활동, 유증상자 발생, 확진자 발생 등의 단계에 따른 구체적인 행동지침 및 매뉴얼이 불필요한 접촉과 감염병의 확산을 예방하

는 시작이다. 감염병 예방은 정부 및 질병관리본부를 통해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여 쉽게 접하고 인식하고 있고,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상황에서는 전문 인력의 투입으로 조치가 이루어지지만, 대학 내의 담당자가 개입하고 활동하는 유증상자의 발생단계에서의 명확하고 구체적인 행동지침 및 매뉴얼이 필요하다. 보건전문가가 아닌 대학의 전담인력이 다양한 돌발 상황에서 위기대응의 필수항목과 선택항목 등 역할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한 실무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2차 감염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Comfort(1988) 등이 정의한 것과 같이 위기관리는 위기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철저한 예방과 부득불 발생한 위기상황을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행정이며, 위기관리체계는 이를 담당하는 조직들의 구성체제이다. 그러하기에 대학의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위기관리체제가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 위기관리와 대응을 위한 실효성 있는 매뉴얼의 보급이 필수적이다(정다혜, 2020; 최종림, 2018). 장병연(2017)의 연구에서도 신종 감염병 대응행 시 학교 내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교사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교육·훈련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위한 체계가 필요함을 지적하였고, 노지영(2010) 역시 감염병 발생과 확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수준과 방법을 적용한 교육과 지침이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넷째, 앱 개발을 통한 외국인 유학생 감염병 관리 및 위기대응이 필요하다. 외국인 유학생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대학은 외국인 유학생의 유치에서부터 문화 적응을 통해 성공적인 학업 완료와 직업 현장에서의 사회적 역할 수행을 위한 안전한 교육 환경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건강관련 서비스는 학생 복지 차원을 넘어 학생과 교직원들의 건강과도 직결되는데, 대학 내 다국적 외국인 유학생들의 증가를 통한 해외유입 감염병 확산의 경로가 되어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안진희 외, 2016). 이들에 대한 관리의 중요성이

증가하는 시점에서 관리와 예방의 도구로서 다양한 국적과 언어를 사용하는 유학생의 원활한 소통과 정보공유를 위해 도구의 개발이 필요하다. SNS를 활용한 도구는 시간적 공간적 제약을 넘을 수 있고, 다양한 언어를 사용해서 언어적 장벽까지 극복할 수 있다. 또한 다양한 플랫폼에서 작동 가능하도록 제작하면 사용하는 도구의 제약도 극복할 수 있다. 다양한 플랫폼에서 여러 외국어를 지원하는 앱의 개발로 유학생간, 유학생과 학교간의 신속한 연락과 정보공유가 이루어진다면 유학생 감염병 예방과 관리의 행정적인 효율성이 높아지고, 유학생에 대한 서비스의 다양화도 함께 좋아질 것이다.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건강실태조사에 따르면 다양한 대체를 활용하여 외국인 유학생들의 의료시설 이용 및 건강관련 교육프로그램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건강 상담과 지원을 위한 전담 기구 설치와 전문 인력 배치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는데(이내영과 한지영, 2011) 앱의 개발은 이 필요성의 상당 부분을 충족시켜줄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대학 내 격리시설의 운영관리가 필요하다. 유학생 입국 이후의 초기 및 유증상자 접촉으로 인한 자가격리 기간 중에 사용할 별도의 격리시설이 필요하다. 공동시설인 기숙사는 개방적인 구조라는 문제가 있고, 자가(하숙, 자취)에 격리할 경우 관리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적절한 건물을 임시주거공간으로 구성하여 관리하는 장치가 필요하다. 아울러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마련된 격리공간의 운영과 관리를 위한 지침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질적 연구에 따른 결과 및 결론 도출의 한계가 있었고, 연구대상이 부산지역의 4년제 대학에 한정되어 있어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에 무리가 있을 수 있다. 또한 신종감염병인 코로나19 관련하여 외국인 유학생 감염병 관리 방안을 연구한 다른 연구들과 측정도구나 응답문항이 상이하므로 이러한 점을 고려해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외국인 유학생 관리

및 감염병 예방 실태를 조사하여 유학생 감염병 관리 및 위기대응 방안 모색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함에 의의를 가진다.

V. 결론

본 연구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감염병의 위험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부산지역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감염병 관리 담당자를 대상으로 외국인 유학생 관리 및 감염병 예방 실태를 조사하여 외국인 유학생 감염병 관리 및 위기대응 방안을 제시하고자 실시되었다.

결과와 논의를 토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감염병 관리는 교육부, 부산광역시청, 관할구청, 관할보건소, 대학교육협의회 등의 지원을 받고 활동하고 있지만, 지원 및 역할에 대한 통합관리가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유관 기관들 간의 정보와 자료의 공유가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관련 자료에 대한 중복된 요청이 많고, 유학생에 대한 지원도 일부가 중복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효율적인 행정집행과 관리를 위한 통합관리체계가 운영되어야 함을 확인하였다.

둘째, 대학에서의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실제적인 감염병 관리활동에서 시설 및 전문성의 문제가 일부 확인되었다. 감염병과 관련된 전문 인력의 부족으로 감염병 전문가가 아닌 행정직원이 유학생 관리 담당자로 활동하면서 관리의 허점이 나타날 수 있는 문제가 있었다. 이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유증상자가 발생할 때의 상세하고 사례별로 응급대처가 가능한 구체적인 행동지침이나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것의 중요성을 확인하였다. 또한 대학에서 격리시설을 운영하는데 공간마련과 관리에 유관기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셋째, 외국인 유학생과의 소통도구가 필요함을 확

인하였다. 외국인 유학생과의 시간적, 공간적, 언어적 제약을 극복할 수 있는 소통도구의 활용은 긴급한 상황에서의 정보공유와 관리의 효율을 높여줄 수 있고, 유관기관들과의 직접적인 연계도 가능하여 행정효율을 높일 수도 있다.

참고문헌

1. 교육부. (2020). *대학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 세종: 교육부.
2. 김승대. (2019). 일부 대학생들의 신종 감염병에 대한 예방인식의 분석.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20(3), 447-454.
3. 김영복. (2020). 감염병 예방과 개인위생교육: 손 씻기 교육을 중심으로. *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지*, 37(4), 59-69.
4. 노지영. (2010). 재해 간호에 대한 간호사들의 인식 및 핵심 수행 능력[석사학위논문]. 서울: 연세대학교 대학원.
5. 대학알리미. (2020). *대학알리미 외국인 유학생 현황*. Retrieved from <https://www.academyinfo.co.kr/search/search.do>
6. 박동균. (2020). 코로나 19 사태를 통해 본 대한민국 위기관리의 문제점과 교훈. *한국치안행정논집*, 17(3), 127-150.
7. 손애리, 최명일, 이해규, 김대욱, 한숙정 외. (2020). COVID-19: 대한민국의 사례와 경험 - 보건커뮤니케이션과 위기관리 관점에서. *한국국제협력단 연구보고서*, 1-93.
8. 손창우. (2020). 건강도시 관점에서 본 서울시 코로나19 대응과 건강도시의 정책 방향. *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지*, 37(4), 1-17.
9. 안진희, 안영미, 우성일, 송미령, 손민. (2016). 일대 대학 외국인 유학생들의 대학건강센터 이용 실태 조사. *한국아동간호학회지*, 22(1), 29-36.
10. 이내영, 한지영. (2011). 외국인 유학생의 건강

- 실태 조사. *동서간호학연구지*, 17(1), 48-56.
11. 이시철, 김선영, 박상훈. (2020). 대학의 코로나-19 초기 대응과 수업 만족도 평가: 경북대학교의 비대면 학기 사례.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0(20), 993-1019.
 12. 장병연. (2017). 신종감염병 대유행시 국가위기 관리체계에 관한 연구 - 학교감염예방활동을 중심으로. *대한정치학회보*, 25(3), 69-89.
 13. 정다혜. (2020). 초등학교사의 감염병 재난대응역량에 대한 개념도 연구: 대구시의 코로나19 대응 과정을 중심으로. *한국교육*, 47(3), 5-31.
 14. 주효진, 장봉진. (2020). 감염병 관리체계의 효율화에 관한 연구 - 지역감염병 관리체계를 중심으로. *한국자치행정학보*, 34(2), 353-376.
 15. 질병관리청. (2020). *질병감시연보*. 충북: 질병관리청.
 16. 최종림. (2018). 국내 감염관리간호사의 경력단계별 감염관리 역량지표 개발[박사학위논문]. 서울: 연세대학교 대학원.
 17. 통계청. (2020). *출입국자 및 체류 외국인 통계: 유학생 관련 현황*. Retrieved from <https://kosis.kr/index/index.do>
 18. Comfort LK. (1988). Designing Policy for Action: The Emergency Management System. *Managing disaster: Strategies and Policy Perspectives*. Duke University Press, 3-21.
 19. Fiore AE, Epperson S, Perrotta D, Bernstein H, Neuzil K. (2012). Expanding the recommendations for annual influenza vaccination to school-age children in the United States. *Pediatrics*, 129(21), 54-62.
 20. Guba, EG. & Lincoln YS. (1981). Effective evaluation: Improving the usefulness of evaluation results through responsive and naturalistic approaches. San Francisco, *Jossey-Bass*. 1-423.
 21. KBS뉴스. (2020.11.02.). 확진자 중 무증상자 비율 약 40%...무증상자 찾기 위한 검사 확대. Retrieved from <https://news.v.daum.net/v/20201102152643044?f=o>
 22. World Health Organization. (2020). Retrieved from <https://www.who.int/emergencies/diseases/novel-coronavirus-2019>